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착한 우리 아들을 믿는다.” 부모님께 항상 실망만 시켜 드리던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께 들어 왔던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공군 헌병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던 올해 4월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우수한 분이셨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상경해 박카스를 팔아 힘들게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 명문 대학을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셨다. 그리고 본인이 힘들었던 옛날을 잊지 않고 아직도 힘든 사람들을 돕고 계시며 사람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기업에 다니신다. 항상 공익에 종사하는 자신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청렴하게 살아오셨으며, 자식인 나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우수한 아버지에 비해 많은 실패로 아버지께 실망을 드렸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여 1년간 재수를 했고, 재수하고 있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놀기만 했다. 같은 해 함께 재수한 사촌이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한 것과 달리 나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나조차도 나에게 실망하여 실의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께선 어떤 꾸지람도 없이 나를 믿는다며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 또한 이런 아버지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고 올바르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고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군 입대 당시에도 나를 아끼시는 삼촌이 육군 대령으로 복무 중이었기에 혹시나 모를 특혜를 피해 일부러 공군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군 복무 2년의 기간 동안 휴일 없이 실시되는 교대 근무라는 힘든 근무 조건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런 올바른 행동들을 하면서 옳은 일을 고수해 나가면 나갈수록 정말 많은 갈등에 시달렸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올바르게 행동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일과 직책들이 나에게 부과되

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 생각하며 힘들게 버텨 나가긴 했지만,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전역을 두 달 앞둔 2월, 나는 아버지가 30년간 근무하며 평생을 바치시던 공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공채에 지원하게 되었다. 공채는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두 번의 면접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나는 휴가를 내서 필기시험에 응시했는데, 나중에 경쟁률이 130:1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날 아버지로부터 차 안에서 시험 결과를 확인했을 때는 정말로 꿈을 꾸는 느낌이었고, 드디어 부모님께 떳떳한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아버지 또한 내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 잠시 차를 멈추시곤 “거봐라. 아빠는 널 믿었다니까!” 하시고 나와 함께 우셨다.

사실 나는 경쟁률이 100이 넘어갔다는 말을 듣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기회를 얻어 냈고, 힘들게 얻은 기회인 만큼 그 기회가 너무나 간절하게 다가왔다. 첫 취업 면접이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방법을 이용하면서라도 이 기회를 잡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면접에 붙을 수 있도록 조언과 예상 질문 등 면접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부탁드렸었다. 그때 아버지는 나에게 시험과 면접은 공정성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공채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이 오직 능력만으로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하셨고, 따라서 자신은 나에게 공사에 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나도 생각을 바르게 먹기로 했고, 힘들게 노력해 온 만큼 내 진면목을 평가받기로 결심했다. 부대에 있기에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어 대리로 서류 제출을 할 때에도 혹시라도 아버지를 알아봐 내게 특혜가 주어지는 일이 없도록 공사와 전혀 관계없는 어머니나 이모님께 부탁하여 서류를 제출했다.

이러한 내 노력이 보답받은 것인지 나는 무사히 필기시험, 1차 면접까지 합격하고 최종 면접까지 순조롭게 합격했다.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에 일어났다. 면접 마지막에 긴장이 풀려 면접관님 중 한 분이 한 질문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10초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이 얼어붙고 말았고,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게 넘어갔다. 옆 사람들에게 질문이 돌아가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라면 안 된다. 무언가 해야 한다. 이런 강박이 나를 강하게 몰아냈고, 그 순간 강박이 점점 더 선명해져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밖에서 자유롭게 면접 대비를 한 저 사람들과 달리 전역 전날까지 고생하고 있잖아? 그런 내가 고작 실수 하나 했다고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은밀하게 밝히면 어떨까? 그 정도는 내 말 주변으로 충분히 은밀하게 면접관님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아버지께선 30년 이상 공사에 다니셨으며, 소위 인맥도 넓은 분이셨기 때문에 면접관님들이 우리 아버지를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았다. 설마 자기 동료의 아들이 실수 하나 했다고 떨어뜨리겠는가.

면접관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질문을 할 때,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가 이제 거의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면접장을 오기 직전 아버지와 있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나를 걱정해 주시던 아버지께 열게 미소 지으며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나는 항상 착한 우리 아들을 믿는다.” 그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편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나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항상 나를 믿어 주셨고, 무엇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런데도 나는 한순간이나마 또다시 나를 믿지 못하고 나 자신과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배신하려 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러자 내가 하려고 했던 행동이 얼마나 옳지 못한 행동인지 자각할 수 있었다. 내가 하려고 했던 행동은 나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 공사와 나를 믿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면접을 보던, 어쩌면 나보다 더 큰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는 면접자들에게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누군가의 꿈을, 누군가의 기회를, 누군가의 선의를 부당한 방법으로 나라는 개인을 위해 짓밟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을 리가 없다. 나는 뗏뗏해지기로 결심했고, 결국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

결과만 본다면 아쉬운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지금껏 내가 무수히 겪은

실패들과 달리 성공한 실패였다. 내가 만약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면 면접에 합격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욱 좌절했을 것이고, 공정하게 노력해 온 타인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동안 끊임 없이 나를 괴롭혔을 것이다. 실패했다. 그러나 당당한 점 없던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다. 지금 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시 공부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직함으로써 내가 순간적으로는 힘들거나 성과를 놓치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비로소 내가 이제까지 되고 싶었던 내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손꼽아 기다리던 전역을 한 나는 전역 기념으로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서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 아버지는 여행 동안 나에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아버지는 항상 공정한 사회를 꿈꾸었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자주 청렴과 정의에 대해 열변을 토하시곤 했다. 그런 아버지는 공사의 내부인인 아버지가 나를 돕는 것이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을 대비하는 동안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무런 말조차 걸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고 계셨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내가 떨어지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점을 자책하고 계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 지극히 옳은 일이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저를 믿고 묵묵 지켜봐 주시고 바르게 키워 주신 점,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여전히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로 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